

신규격 사진시스템(APS: Advanced Photo System)이란?

※ 자료제공 : 한국후지필름(주)

신규격 사진시스템(A.P.S)은 후지, 코닥, 캐논, 미놀타, 니콘 등 5개사에 의해 지난 '92년부터 '기존 영상기술에 편의성을 더하는 새로운 기술'을 목표로 개발에 나선 제품으로 기존의 35mm 필름을 대체할 새로운 사진시스템을 이르는 말이다. 지난 '95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P.M.A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바 있으며, 지난 '96년 2월1일 후지필름과 코닥사를 비롯한 필름, 카메라 메이커들이 세계 감광재시장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신기술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매스컴을 통해 공식으로 발표했다.

신규격 사진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필름의 사이즈가 기존 35mm에 비하여 24mm 사이즈로 작아졌다.
- 신규격 필름은 135mm 필름보다 더 얇고, 강하고, 환경에 유익한 재질(폴리에틸렌,

나프탈렌)로 만들어졌으며, 폭이 24mm이다. 화상에리어는 16.7×30.2mm로 소비자가 원하는 적합한 사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로인해 카메라 제조 회사들은 기존 카메라를 더 작게 만들 수 있어 휴대나 사용이 편리한 초미니 카메라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다.

2. 필름장전이 편리한 카트리지

필름이 완전하게 카트리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취급이 쉽고 카메라에 장전할 때에도 사용자의 실수가 없다. 새로운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필름의 보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콘화시켜 사용자들은 실수 없이 필름 카트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세가지 종류의 사이즈로 사용자들이

인화사이즈를 간단하게 선택하여 촬영가능
하나의 필름에 세가지 다른

형태의 사진을 담을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일반앨범에 적합한 표준 크기이고, 둘째로는 CD기술을 이용하여 TV에 적합한 풀포맷영상이며, 셋째로는 광각형 파노라마 형태이다.

[C] 타입은 135mm 필름과 동일한 사이즈

[P] 타입은 파노라마 사이즈

[H] 타입은 C와 P의 중간 사이즈

이러한 인화사이즈는 촬영시에 필름에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보존된다.

4. 현상된 필름의 보관과 정리가 용이

새로운 카트리지는 현상 전에는 필름의 캐리어가 되고, 현상 후엔 필름 보관용기로 사용된다. 필름에 기록된 데이터와 카트리지의 데이터가 촬영과정이나 현상, 인화과정에서 항상 동일하도록 자동 입력되며, 개선된 백프린트는 신규격 사진 시스템에서 인화지 뒷면에 촬

영시각, 필름 카트리지번호, 프레임번호, 카메라 데이터, 프레임 타이틀, 장면에 대한 정보 등을 기록할 수 있어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한다.

5. 필름 한 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INDEX 인화

신사진시스템의 독특한 서비스의 하나로 사용자들은 인화된 사진은 물론 인덱스 사진을 받아볼 수가 있다.

인덱스 인화는 작은 포지티브 화상으로 인화하여 전체 롤에 찍힌 사진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각 사진의 노출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재인화시의 편리를 제공한다. 또한 여기에는 각각의 사진에 프레임 넘버와 인화사이즈가 표시되어 더욱 편리하다.

6. 마그네틱과 바코드를 통해 노출 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를 기록

신규격 필름에는 바코드와 마그네틱이 코팅되어 있어 여기에 노출보정 등 다양한 정보를 기록할 수가 있고, 또 변경도 가능하다.

이런 정보를 자동인화 과정이나 인화사이즈를 결정, 인화지 뒷면 인쇄 등에 사용된다.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진 신규

격 사진시스템은 세계 관광제 시장의 일대혁신을 가져오리라 판단되며, 신규격 사진시스템과 관련한 현상처리기기는 지난 '96년 1월, 일본에서 출하되어 시범 운영중에 있으며, 신규격 사진시스템을 운영하는 현상소 및 미니랩 업체에서는 신규사진시스템에 대한 서비스 품질보증을 위한 프로그램 마크와 트레이드 마크를 사용하여 고객의 인지도 제고와 사진 서비스에 대한 품질보증을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격 사진시스템에 부합한 필름과 카메라는 오는 4월 경에 본격 출시될 예정이다.

유식공간

코 닥 포 토 살 료 사진전 일정

전시회명	내 용	기 간	장 소
중견 사진가 7인전	한국의 중견사진가중 독특한 이미지를 표출하는 7인을 선정하여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였으며 풍경, 인물, 이미지 등 다양한 피사체를 대상화한 작품전이다.	3. 6 ~ 3. 19	코닥포토살롱
제3회 이정을 개인전 "수용시설 장애인들"	작가 자신이 2년동안 전국의 장애인 수용시설을 방문, 직접 숙식하면서 촬영한 사진으로서 신체적 어려움과 함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사는 이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알리고자 한다.	3. 20 ~ 4. 2	"